

# 2019 바지락오감 체험 페스티벌



## 바지락오감체험 페스티벌

2019. 5. 18(토) ▶ 5. 19(일) 2일간  
하천어촌체험마을(전북 고창군 심원면 하전리)

## 고창갯벌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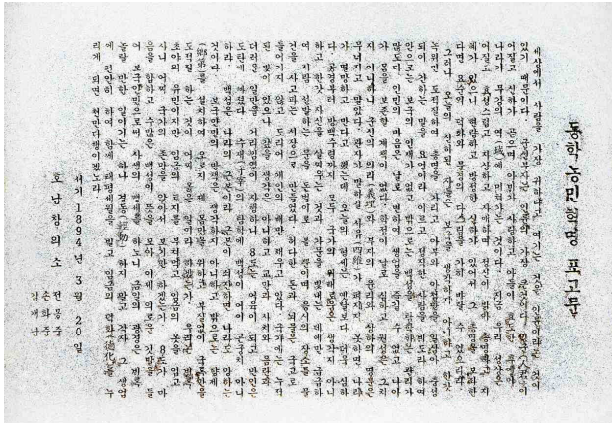
2019. 6. 7(금) ▶ 6. 9(일) 3일간  
전북 고창군 심원면 만돌갯벌체험장 일원





# 125년전 한반도 첫수도 고창 농민들의 외침, 광화문 광장 한복판에서 울려 퍼지다

[동학농민혁명 125주년 기념식] 고창 무장기포의 의미와 가치 주목



## “세상에서 사람이 가장 귀하다”

조선시대 왕실과 국가의 권위를 상징했던 경복궁의 정문, 광화문 광장 한복판에서 동학 농민혁명 무장포고문이 울려 퍼졌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정부가 주최한 ‘동학농민혁명 125주년 기념식’이 5월1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다. 지난 2004년 9월 동학농민혁명특별법 제정 15년만이다. 특히 이날 고창군에서 요구해 왔던 국가 기념식에 ‘포고문 낭독’이 이뤄지면서 고창 무장 기포의 의미와 가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포고문은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귀하다는 것은 인륜이 있기 때문이다”로 시작해 “이로운 것만을 들어 보국안민으로써 죽고 살기를 맹세 한다”로 이어진다.

당시 포고문은 고부 농민 봉기 이후 전봉준을 비롯한 동학농민혁명 지도부가 무장에서 재봉기를 선언하면서 발표했다.

동학농민혁명의 대의명분을 함축해 전라도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 격문을 보내 농민 군들의 합류를 촉발했다. 여기에 동학농민혁명이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 전국적인 대규모 항쟁으로 커지고, 우리나라 역사의 민족·민중항쟁의 근간이 되는 선언문으로 평가 받고 있다.

동학농민혁명은 인간의 사회적 평등과 국가적 자주성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다. 이로 인해 동학혁명은 인도의 ‘세포이 반란’, 중국의 ‘태평천국의 난’ 등과 함께 아시아 3대 농민혁명으로 꼽힌다.

앞서 지난 4월 고창을 찾은 한홍구 교수(성공회대)도 동학농민혁명 관련 “125년전 이미 반상의 차별과 서열, 적서의 구별에 반대하고, 노비제도 폐지는 물론이고, 여성 해방과 어린이 해방까지 역설했다”며 “이는 당시 세계 어느 다른 나라에서도 표방하지 않았던 인간의 평등성을 19세기에 동아시아의 한반도, 고창 땅에서 피력한 민주주의의 혁명적 사상이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날 기념식의 시작과 마지막은 고창 우도농악이 장식했다. 광화문 한복판에서 펼쳐지는 농악놀이의 진수로 의향의 도시, 예술의 도시, 한반도 첫수도 고창의 품격을 전국에 알렸다.

고창군수는 “동학농민혁명은 보국안민, 제폭구민, 척양척왜, 자주평등을 외치며 민중 스스로에 의해 자주적이고 역동적으로 일어나 민주주의 운동의 효시다”며 “이번 포고문 낭독을 계기로 고창 무장기포지와 전봉준 장군의 생가터를 국가사적으로 승격시켜 동학농민혁명의 위상과 의미를 알려 가는데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 고창군 무장기포지에서 되살아나는 ‘동학혁명정신’

고창군, 4월25일 동학농민혁명 제125주년  
기념행사 및 무장기포기념제 열어



무장을 관아로 가는 20리 진격길! ‘보국안민(輔國安民)’, ‘제폭구민(除暴救民)’ 등 저마다의 깃발을 높이 들고 당당히 걷는다. 뜨거운 봄 햇살에 살갗이 타고, 이마엔 땀이 맺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하다. 드디어 무장읍성. 관군이 지키고 있는 성문은 높고 굳게 닫혀 있다. 하지만 혁명군 기세에 눌린 관군은 거의 손을 쓰지 못하고, 혁명군은 무혈입성하며 환호했다.

고창군이 4월25일 공음면 무장기포지와 무장읍성 일원에서 ‘동학 농민혁명 제125주년 기념행사 및 무장기포기념제’를 열었다.

행사는 무장기포지(현 공음면 구암리 구수마을)에서 출정기념식과 포고문 낭독, 헌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후 참가자들은 황토빛 농민 군복에 차림에 각각의 깃발을 들고 무장읍성까지 약 7.2km에 걸친 진격로를 걸었다.

이날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는 제12회 녹두대상 수상자로故 진기홍(전 광주 체신청장) 선생을 선정했다. 진기홍 선생은 동학농민혁명 관련, “고창이 동학농민혁명 발상지”라는 사실을 수많은 강연과 기고문을 통해 알렸다.

## 드라마 녹두꽃 촬영지, 고창읍성·선운사 ‘인기몰이’

동학농민혁명 다룬 드라마 녹두꽃 화제  
고창읍성·선운사·무장읍성에서 촬영



“여그가 텔레비에 나왔던 거그여?”

고창군이 제작 지원하는 드라마 ‘녹두꽃’이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촬영지인 고창읍성과 선운사를 찾는 관광객들 사이에서도 화제를 모으고 있다. 고창읍성 문화해설사는 “평소 고창읍성을 찾은 군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시원한 그들이 되어주던 평근당이 드라마 촬영지로 알려지고 난 뒤에는 건물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려는 관광객들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동학군과 관군의 전투신이 촬영된 ‘선운사’, 남녀 주인공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선운산 산책길’, 형과 아우가 진한 우애를 나눴던 ‘북분자주’도 입소문을 타고 있다.

여기에 최근 ‘무장읍성’에서도 드라마 초반부의 핵심 장면들이 촬영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 드라마 연기자와 스태프 등 100여명이 고창지역 숙박업소와 식당을 이용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한편, 드라마 ‘녹두꽃’은 1894년 동학농민혁명 속에서 농민군과 토벌대로 갈라져 싸워야 했던 이복형제의 휴먼스토리를 그리고 있다. 동학농민혁명이 전국적 민중 운동으로 커져갔던 ‘무장기포지’가 있는 고창군도 제작을 지원하고 있다.

## “한반도 농생명 문화의 꽃을 피우자”

고창군, 4월19일 고인돌공원일원서 제1회 한반도 고창 시농대제 열어



수천년 전부터 천체를 지내왔던 마을의 어르신들이 농요를 부르고, 군수와 군의장이 100년이 넘게 이 땅의 흙을 만지며 살아오신 어르신들의 손을 정성스럽게 씻어 드린다. 한쪽에선 지역 주민들이 동네마다 돌아다니며 모은 토종씨앗을 심고, 탐스런 열매가 맺힐길 기원한다. 고창군수는 ‘한반도 농생명수도 비전’을 선포하며 “한반도 농생명 문화의 꽃을 피울 것”을 다짐했다.

한반도 농생명문화 시원지 고창군이 국내최초로 시농대제(始農大祭)를 열어 큰 관심을 끌었다. 순수하게 ‘한반도 농업가치 존중’을 테마로 한 전국 최초의 지자체 주관 행사다.

행사는 총 3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 타악공연(땅의 울림), 100세 어르신 세수식과 미디어 퍼포먼스(선택의 땅, 고창), 시농의식(씨앗 심기)으로 분위기를 한층 끌어 올렸다.

이어 2부에선 고창군수가 한반도 농생명문화수도 비전을 선포했다. 고창군수는 “고창군은 거석문화의 흔적이 살아 숨쉬고, 한반도 문명이 시작된 곳이다”며 “농생명 식품산업을 살리고, 선택받은 땅 고창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농생명문화수도 고창을 선포한다”고 힘차게 외쳤다.

‘농부권리장전 선언문’에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보전하고 후대에 물려줄 권리 ▲토종 종자를 보호하고 식량주권을 확보할 권리 ▲땅이 훼손되거나 농업의 가치가 파괴되는 것을 거부할 권리 등이 담겼다.

이밖에 행사장에선 ‘씨앗나눔 마당’이 열려 고창군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작물의 씨앗(옥수수등 20품목)을 나눠주고, 모종 4만주를 원가로 살 수 있는 기회도 마련돼 호응을 얻었다.

## 고창 청보리밭축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톡톡히’

10%할인쿠폰, 관광객은 물론 지역 상가까지 모두 만족!!

올해 ‘고창 청보리밭 축제’가 축제장을 고창전역으로 확장시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담당했다.

‘고창청보리밭축제’는 25만평 광활한 대지의 청보리와 유채꽃이 장관을 이룬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경관농업축제다. 특히 올해는 축제장을 고창군 전체로 확대하는 신선한 시도가 진행됐고, 결과는 대만족이었다.

고창군은 축제기간 중 청보리밭 행사장 방문객에게 관내 모범음식점(일반음식점 32곳, 풍천장어전문점 24곳)과 숙박업소 이용시 10%할인 쿠폰을 나눠줬다. 고인돌박물관과 고창읍성 무료입장, 석정휴스파와 상하농원 입장도 30%할인했다.

이에 따라 관광객들은 행사장에서 다소 떨어진 선운산이나 고창읍내의 음식점까지 직접 찾아와 쿠폰을 사용하고, 인근의 관광명소를 둘러봤다.

실제 지난 연휴(4~6일) 고창읍내 곳곳에서 할인쿠폰을 사용하거나, 사용법을 문의하는 모습도 목격됐다.

특히 올해 첫 선을 보인 ‘청보리밭 황금손’과 ‘트리아트’는 축제기간 중 SNS를 뜨겁게 달구며 ‘대박’을 터뜨렸다. 이는 자연스럽게 행사장 체류시간을 늘리며 그간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여유틈게 머물며 즐기다가는 명품 여행지’로 변모했다.

또 체계화된 교통안내와 확충된 관광객 편의시설(화장실, 물품보관소, 수유실)등도 호평을 받으며 23일간의 대한민국 봄 대표축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



[여름철 대표과일 고창수박 본격 출하]

“달고 맛있는 고창수박 만나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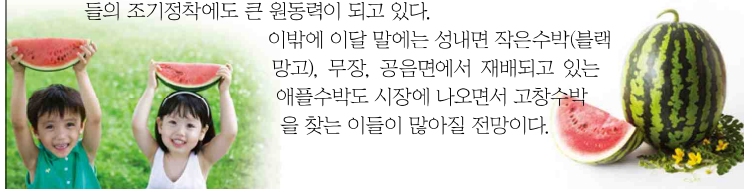
한반도 첫수도 고창군의 명품 수박이 출하되면서 본격적인 여름을 알렸다.

올해 고창수박 출하는 지난해 대비 20일 정도 빠른 것으로 일찍 시작된 무더위에 지친 전국 소비자들의 심신을 달래줄 전망이다.

고창 ‘스테비아 수박’은 국화과 다년생 허브식물인 스테비아를 액비로 활용해 당도를 높였고, 식이섬유 등이 다량 함유된 기능성 수박으로 자리매김했다. 스테비아 수박의 당도는 13브릭스(Brix)로 설탕의 200배지만, 칼로리는 설탕의 1%에 불과해 여름철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지난해 60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려 농가 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여기에 전국 최고 브랜드 파워로 귀농귀촌 농가의 유입과 이들의 조기 정착에도 큰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밖에 이달 말에는 성내면 작은수박(블랙망고), 무장, 공음면에서 재배되고 있는 애플수박도 시장에 나오면서 고창수박을 찾는 이들이 많아질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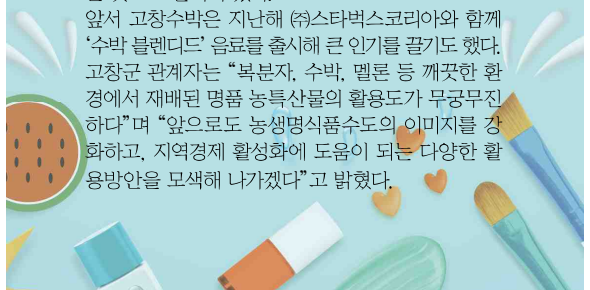


## “대한민국 명품과일 ‘고창수박’ 이젠 얼굴에 발라요”

대한민국 명품과일 고창수박이 이젠 식품을 넘어 화장품까지 진출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최근 국내 화장품전문브랜드가 고창수박 추출물이 함유된 ‘선쿠션’을 출시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워터멜론 선쿠션’은 ‘고창산 수박’에서 나온 추출물과 피부에 보습을 더해 주는 수박씨 오일을 배합한 ‘워터멜론 콤플렉스’가 함유돼 피부를 진정시키고, 보습 효과가 있어 피부를 촉촉히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고창수박은 지난해 (주)스타벅스코리아와 함께 ‘수박 블렌디드’ 음료를 출시해 큰 인기를 끌기도 했다. 고창군 관계자는 “복분자, 수박, 멜론 등 깨끗한 환경에서 재배된 명품 농특산물의 활용도가 무궁무진하다”며 “앞으로도 농생명식품수도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제263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폐회

고창군의회(의장 조규철)는 4월 24일 제2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들을 처리하고 회기를 마무리 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최인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창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과 이정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비롯해 고창군수가 제출한 고창군 비지정관광지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등 총 17건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4월 18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해리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13개 사업장의 현장 방문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 고창군의회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고창군의회(의장 조규철)는 제263회 4월 17일 임시회를 개최하여 4월 2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갔으며, 특히 임시회 기간 동안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 주요사업장 13개소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였다.

이번 현장방문은 군에서 추진중인 주요 현안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파악하고 발전방안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생산적이고 현장 중심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주요사업장 방문 대상지로는 지역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해리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구시포항 이용고도화 사업 ▲해리전(지방하천) 정비사업 ▲외정천(생태하천) 복원사업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질마재 시인마을을 관광 조성 사업(가로수 조성길 포함) ▲고창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 ▲운곡람사르습지 에코촌조성사업 ▲식량작물 수출 생산단지 조성사업(정맥) ▲가평(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고창항토정정고구마 웰빙산업육성사업 ▲고창군 향토전시체험관 운영 ▲고창군 추모의집 운영상황 등 13개 사업장을 직접 둘러보고 현장관계자로부터 사업추진과 각종 애로사항 등을 직접 청취하였으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다.

조규철 의장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 및 현안사항을 면밀히 파악, 검토하여 대책 및 대안을 강구하고 해당 관계부서에 전달하겠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불편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군민과 소통하며 함께하는 의회’로 자리매김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제263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의안 의결현황

소관 위원회	의안 번호	의 안 명	제출부서	의결사항
합계		17건		
운영 위원회 (2)	127	고창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의결발의 (최인규의원회)	원안가결
	128	고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결발의 (이정신의원회)	원안가결
자치행정 위원회 (11)	113	전국책임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문화예술과	원안가결
	110	고창군 비지정관광지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문화유산 관광과	원안가결
	123	고창군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사회복지과	원안가결
	111	고창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	원안가결
	118	고창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	원안가결
	124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무과 (상생경제과)	원안가결
	119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력행정과	원안가결
	112	고창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소	원안가결
	120	고창군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체육청소년 사업소	원안가결
	121	고창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	체육청소년 사업소	원안가결
	122	고창군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체육청소년 사업소	수정가결
산업건설 위원회 (4)	115	고창군 복분자 산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생명자원과	수정가결
	114	고창갯벌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해양수산과	원안가결
	116	고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난안전과	원안가결
	117	고창군 옥외광고발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건설도시과	원안가결

## 고창에서 시군의장협의회 월례회 열려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방세법(지역자원시설세) 개정 및 부창대교 건설 요구



지난 4월 26일 고창군의회가 주관하고 전북 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주최한 제244차 월례회의가 고창군의회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고창군의회에서 제안한 고창지역 중대 현안인 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방세법(지역자원시설세) 개정 촉구 건의안과 부창대교 건설 건의안을 채택하였다.

협의회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하여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이 고창 전역과 부안 일부지역까지 확대되었는데도 현행법상 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는 원전 소재지로 되어있다”면서 “원전 주변지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기준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배분하여 방사능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한다.”며 현실적인 법 개정을 촉구하였다.

또한 「부창대교(고창-부안) 건설」 건의안을 통해 국도 77호선에서 미개설 구간은 부창대교와 남해~여수간 한려대교 2곳에 불과하다면서 국가 기간도로망 구축과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하여 부창대교를 조속히 건설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조규철 고창군의회회장은 “고창 전 지역의 방사능 방재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대책 수립을 위한 자원 확보를 위해 관련 지방세법 개정과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부창대교 건설이 절실하다.”면서 “이러한 요구의 목소리를 협의회를 통해 정부와 국회에 잘 전달해 하루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열정·감동·환희’ 제56회 전북도민체육대회 성황리에 마무리

“따뜻한 인정으로 선수단 맞이하고,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울려퍼 주신 모든분께 감사”



고창군에서 역대 3번째로 열린 ‘제56회 전라북도민체육대회’가 사흘(5월10~12일) 간의 열전을 마치고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한반도 첫 수도 고창에서 웅비하는 천년전북’을 슬로건으로 한 이번 대회는 성화제 화부터 남다른 품격을 과시했다. 지난 9일 진행된 성화 채화는 ‘한반도 첫 수도, 불을 밝히다’라는 주제로 한반도 문명의 시원지 도산리 고인돌에서 세계 최초로 부싷돌 방식으로 점화됐다.

개막식도 ▲VR 드로잉 퍼포먼스 ▲고창의 소리와 오케스트라 공연 ▲오거리당산 고창보존회에서 선보이는 고창 주제공연 등이 다채롭게 펼쳐져 전북 각지에서 찾아온 선수·임원진과 응원단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다.

성화 최종 주자는 화재 차량에 뛰어들어 운전자를 구한 택배 기사 유동운씨를 비롯해 장애인, 루지종목 유망수 등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돼 의미를 더했다.

특히, 대회기간 중 고창 곳곳에선 다양한 먹거리와 즐길거리를 체험하는 축제의 장이 펼쳐져 그 어느 대회보다 많은 도민들의 참여와 큰 호응을 이끌었다. 여기에 400여명에 달하는 고창군 자원봉사자들의 미소와 친절에 호평이 잇따랐다.

경기 결과에서도 고창군은 종합순위 3위, 입장상 2위, 학생부 5위를 차지하며 선전했다. 특히 학생부 최우수 선수에는 배드민턴에 출전한 천혜인(고창초 6학년) 선수가 선정됐고, 김상필 고창초 배드민턴 지도교사가 지도자상을 받았다.

고창군수는 “이번 고창에서 열린 도민체전은 대회운영은 물론, 군민참여 열기 등 역대 최고의 대회로 손꼽히기에 손색이 없다”며 “따뜻한 인정으로 선수단을 맞이하고,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적극 울려퍼 주신 모든 고창군민들께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 전북 예술인들의 대축제 ‘전라예술제’ 예향 고창서 꽃 피웠다



전북 예술인들의 큰 잔치 제58회 전라예술제가 5월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고창 모양성 잔디광장에서 열렸다.

사)한국예총 전북연합회(회장 선거현)가 주최하고, 전라북도와 고창군이 후원하는 이번 예술제는 ‘제56회 전북도민체전’ 기간에 진행해 예향전북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종합예술축제로 펼쳐졌다.

‘빛나라 전라예술 신나라 도민체전’이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예술제는 국악, 무용, 연극, 연예, 음악 등 5개 공연단체가 매일 오후 2시와 밤 7시에 공연을 펼쳐며 군민과 관광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다.

또한 건축, 문인, 미술, 사진 등 4개 협회의 작품전시회, 도내 11개 시군예총이 참여하는 합동공연과 고창예술을 대표하는 고창보릿대춤과 임동창의 모모와 아산 등의 품격높은 공연이 깊어가는 한반도 첫수도의 봄밤을 수놓았다.

## 책으로 가득했다 ‘2019고창한국지역도서전’

나흘간 2만여명 찾아, 전국 50여개 지역출판사 참여해 2000여권 지역도서 전시



고창군 책마음해리 일원에서 ‘2019 고창한국지역도서전’이 열렸다. 제주·수원에 이어 세 번째로, 군 단위로는 최초다.

‘지역에 살다, 책에 산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4일 동안 관광객 2만여 명이 방문해 전국 각지의 출판물과 도서문화를 감상하고, 지역출판의 의미를 되새겼다. 고창한국지역도서전은 고창군과 한국지역출판문화잡지연대가 공동주최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한국지역도서전은 ‘책 영화제 해리’, ‘어린이·청소년·할매 작가와의 만남’, ‘권오준 마을학교’와 ‘고창선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관광객들은 책마음 광장에서 지역책을 읽고 토론하며 지역무지선의 공연을 즐겼다.

또 도민체전 행사장과 고창읍내 곳곳에는 전국 지역출판사에서 펴낸 2000여 권의 지역도서가 전시돼 관광객을 맞이했다.

특히 11일 저녁 열린 ‘고창한국지역도서전의 밤’에서는 고창군수와 한국지역출판문화잡지연대 대표가 함께 지역책 독서운동 등 고창이 지역출판 도시로서 앞장서기 위한 내용을 담은 ‘고창선언’을 발표했다.

이대진 고창한국지역도서전 집행위원장은 “우리는 지역문화가 담긴 책을 통해 이야기를 공유하고 미래를 상상한다”면서 “지역문화 콘텐츠가 지닌 가치를 높여 한국지역출판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



# 나눔과 봉사 기부천국 고창

## (주)인플러스

### 고창군 취약계층에 싱크대 선물

고창군 아산면 소재 주방가구 제조업체인 (주)인플러스(대표 송미연)가 고창군 관내 취약계층에 올해로 9년째 주방가구를 무상으로 설치해 나눔과 기부를 실천하고 있다.

고창군 아산면 농공단지에서 위치한 (주)인플러스는 2011년 고창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매년 4가구씩 저소득층의 싱크대를 무상 지원해 오고 있다.

올해도 고창군청 희망복지지원단은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싱크대가 파손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 4명에 대해 가구당 150만원 상당의 싱크대를 교체지원했다.

(주)인플러스 송미연 대표는 “앞으로도 고창군과 함께 주방가구가 필요한 어려운 가정을 도와 기업의 이익을 나눌 계획이다”고 밝혔다.



## 자식농사 잘 짓는 고창 만들기에 함께해 주신 분들

의료법인석천재단고창병원(2000만원), 죽도어촌계 김범순(100만원), 강우진(300만원), 산림조합(200만원), 이성진(50만원), 대한건설협회 고창군협의회(300만원), 전북육의광고협회 고창군지부(500만원), 상하면체육회,기관단체협의회(130만원), 서울시니어스타워(주) 고창웰파크씨티(500만원), 대산면 생활개선회(100만원), 대산면 강옥현 생활개선회장(10만원), 대산면 박영희 생활개선회 부회장(10만원), 화동서원(300만원), 정읍고창좋은사람들(50만원), 대한적십자 고창군대산면단위봉사회(100만원), 김근자(김용신)(20만원), 홍성금(오균석 전면장)(30만원), 김금자(박상래 대산노인회장)(10만원), 김정숙(이용원 월드모텔)(50만원), 김정자(정석진)(20만원), 이정숙(신종철)(50만원), 송옥란(김유신 ok마트)(20만원), 강고예(정기남 대성마트)(20만원), 정윤자(김영길)(30만원), 강순자(20만원),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 고창가정교회(200만원)

-(제)고창군장학재단 장학금 기탁에 감사드립니다.

## 고창군 을묘회(1975년생 모임) 성송 남중학교 복싱 유망주에게 장학금 전달



고창군 을묘회회장 전경영이 지난 22일 성송남중학교 복싱 유망주 김은영(3학년)과 김해영(1학년)자매에게 장학금 50만원과 복싱운동복, 운동용품품을 전달했다.

단체는 고창지역 1975년생들이 봉사하고 나눔을 실천할 목적으로 2014년에 결성돼 50여명의 회원들이 지역사회에 크고 작은 역할들을 해 오고 있다. 특히 굴삭기 기사, 덤프트럭 운전자, 공무원, 농업인, 양식업 등 다양한 분야의 직업과 재능으로 쓰레기장으로 변모한 마을 공동묘지를 순식간에 아름다운 공원으로 만들며 재능봉사활동의 모범이 되고 있다.

## 고창 대산면 지사협 어려운 이웃 밀반찬 지원



고창군 대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부문위원장 강순자)가 지난 24일 대산면행정복지센터에서 독거노인 등 복지사각지대 위기에 놓인 어려운 이웃 32세대에 대해 “행복한 반찬마실” 특화사업(밀반찬 지원)을 펼쳤다.

이번 대산면 “행복한 반찬마실”은 대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7명의 위원이 직접 발굴한 복지사각지대 위기에 놓인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전달부터 정성스레 준비한 김자반과 장조림, 무생채, 아쿠르트, 오렌지 등이 각 가정에 전달됐다. 특히 위원들이 밀반찬을 직접 전달하면서 안부확인하고 어려움을 상담하는 활동도 함께했다.

## 고창을 지역사회보장협 독거노인 세대 미끄럼 방지매트 설치



고창군 고창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독거노인 세대에 욕실 미끄럼 방지 매트설치 사업을 추진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협의체는 고창읍 복지허브화 기금을 활용하여 600만원 상당의 미끄럼방지매트를 구입했다. 이후 135세대의 거동불편 독거노인과 장애인 세대의 욕실, 화장실에 매트를 설치하고 있다. 미끄럼 방지 매트를 지원받은 어르신은 “화장실을 갈 때마다 미끄러워질까봐 항상 걱정했는데, 이제 마음 놓고 화장실을 다닐 수 있게 됐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 “소나무향 가득한 효도의자에서 편하게 쉬어가요” 고창군산림조합 원목효도의자 기증



고창군 산림조합(조합장 김영건)이 지난 5월3일 군청을 찾아 벌채 사업으로 버려지는 소나무를 활용하여 제작한 원목 효도의자 100개를 고창군에 기증했다.

고창산림조합은 지난 2015년부터 매년 100개씩의 원목의자를 기증해 오고 있다. 특히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높이로 제작돼 마을 간접이나 쉼터, 버스 정류장 등에 설치돼 어르신들 휴식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 고창군 기관사회단체 강원도 산불피해 구호성금 1247만5000원 전달

고창지역 기관사회단체와 군청공무원들이 강원도 산불피해 이재민 구호성금으로 1247만5000원을 전달했다. 고창군 지역 기관사회단체가 지난 5월7일 대형 산불로 인해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한 강원도 산불피해지역을 방문해 이재민 구호를 위해 써달라며 성금 500만원을 고성군에 전달했다.

이날 강원도 산불피해 성금 전달식에는 고창군수, 이문식 농협중앙회고창군지부장, 김영건 고창군산림조합장, 정병필 대한고속고창영업소장 등이 참석했다. 일행은 산불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천진초등학교에 설치된 이재민 임시 수용소를 방문해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이번 성금은 고창군 기관사회단체장 모임인 모향회에서 강원도 산불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십시일반 마련한 성금으로, 생활이 어려운 산불피해 주민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고창군청 공무원노조에서 100만원, 군청 공무원들도 647만5000원의 성금을 모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고창군수는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강원도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피해 복구가 조속히 완료돼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경일 고성군수는 “도움을 주고자 먼 길을 직접 찾아와 주신 고창군 기관사회단체에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 (주)참빛솔라에너지 흥덕면, 공음면 작은목욕탕에 태양광발전설비 기탁

가정용 태양광발전설비 전문시공업체인 (주)참빛솔라 에너지(대표이사 김용우)가 고창군내 작은목욕탕에 태양광발전설비를 무료로 설치했다.

(주)참빛솔라 에너지와 고창군은 협약을 통해 관내 흥덕면과 공음면 작은 목욕탕에 각각 600만원 상당의 3kw 가정용 태양광 발전 설비를 무료로 시공했다. 공사후에는 연200만원 상당의 전기료 절감으로 작은목욕탕의 에너지 사용 부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용우 대표이사는 “주민들에게 호응도가 좋은 작은 목욕탕의 전기요금 부담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도움이 되고 싶었다”고 밝혔다.



기업탐방

늘 푸르게 발전하는 기업

웰런B&F

“기존의 맛을 벗어난 새로운 맛을 주도한다”  
고창군 농가와 가지 계약수매로 상생협력

지난해 연말 농생명식품수도의 도약을 위해 고창군과 고창 농산물 활용 식품산업 협약을 맺은 업체가 있다. 부안면 북분자농공단지에서 위치한 웰런 B&F다. 고창군과 웰런B&F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고창 농특산물 계약 수매와 가공식품 개발 관련 업무협약을 맺고, 농업인 소득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창군과 상생협력하고 있다.

웰런B&F는 2009년 창사 이래 wellbeing과 running의 합성어로 풍성하게 잘 살자는 사훈을 삼고, 일류 제품 생산, 최상의 소재에 도전하는 진취적인 기업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웰런B&F는 과일, 과채류, 한방원료의 고농축 액상 및 분말제품 등 반제품 생산업체로, 웰런B&F의 주요제품은 과채류제품과 한방류제품이다. 신선한 과채류 및 농산물을 원료로 착즙·추출 및 진공농축의 공정을 거쳐서 가공된 제품으로 천연의 맛과 향을 보존하고 엄격한 품질관리를 거쳐 소비자가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공했다.



한방류제품은 양질의 한방재료를 이용하여 고유의 성분을 극대화하기 위해 원료 특성에 맞게 추출, 여과, 고농축한 제품으로 엄격한 품질관리를 거쳐 가공했다. 주요 거래처는 참다인홍삼, 한삼인, LG생활건강, 서울우유 등이 있다.



또 웰런B&F는 발효 블루베리 조성물 제조방법과 자색당근 발효추출물 관련하여 특허 인증 및 논문 제출 등 과제와 한방 소재의 분석과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웰런B&F 윤호식 대표는 “오랜 실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고의 제품을 제조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항상 최선을 다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T E L : 063-561-0827  
홈페이지 : www.wellrunbmf.co.kr

고창군일자리지원센터

취업상담 및 직업훈련을 통해 구직자와 구인업체 연결, 맞춤형 취업 지원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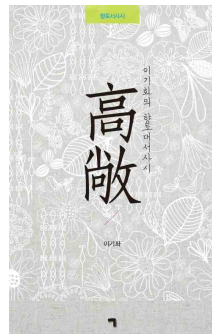
구인/구직자 개인별 상담 및 DB 구축

취업 알선에 따른 구인처 정보 제공

일자리 상담 : 상생경제과 일자리창출팀(☎063-560-2366)

연번	업 체 명	인원	모집직종	근무조건	마감일	근무지
1	석정례저주식회사	1	호텔프론트 사무원	연봉 2,600만원 3교대근무(근무스케줄에따라 조정가능/탄력적휴무제)	채용시	고창읍
2	석정례저주식회사	1	서비스단순 종사원	연봉 2,600만원 주6일근무/08:00~17:00	채용시	고창읍
3	동남광고기획	1	간판제작, 설치원	월급 1,745,150원 주5일근무/08:30~18:00	채용시	고창읍
4	성산식품	3	생산직	시급 8,350원 주5일근무/08:30~17:30 **잔업근무가능자**	채용시	고수면
5	연경전자(주)	4	생산직	시급 8,350원 주5일근무/2교대근무 1조 08:00~17:30(찬열시 19:50) 2조 19:50~(익일)08:00	채용시	고수면
6	연경전자(주)	1	물류배송원	월급 201만원이상(경력자협의가) 주5일근무/08:30~18:00	채용시	고수면
7	이앤지푸드	5	생산직	시급 8,350원 주5일근무/08:30~18:00	채용시	부안면
8	이앤지푸드	1	납품및배송원 (1톤, 3.5톤)	연봉 2,500만원~3,600만원 주5일근무/08:00~18:30 *경력2년이상*	채용시	부안면
9	엔에이치유통 (상,하휴게소)	1	편의점판매원	연봉 2,800만원 주6일근무/08:00~20:00 *탄력적휴무제*	채용시	신림면
10	도건엔지니어링	5	알콘용접 및 보조공	월급 200만원이상 (경력자협의가) 주6일근무/월-금08:00~18:00 토 08:00~12:00	채용시	흥덕면
11	도건엔지니어링	3	기계및금속 캐드원	월급 200만원이상 (경력자협의가) 주6일근무/월-금08:00~18:00 토 08:00~12:00	채용시	흥덕면
12	국순당고창명주(주)	1	생산직	월급 175만원 주5일근무/09:00~18:00 *지게차운전기능사 우대*	채용시	심림면

사서추천-함께 읽고 싶은 책



작가소개  
이기화

(이기화의 향토 대서사시)高敞

이기화 / 기역 / 2016

군립, 성호 : 향 911.93~이18ㄱ

고창 향토사 연구계의 원로 이기화의 '高敞'은 임진왜란 이전의 전통지명 100곳을 골라 그 유래를 장편 이야기 형식인 서사시로 전한다. 시인은 이 책을 통해 '가장 향토적인 것이 가장 민족적인 것이며 가장 토속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으로서 우리가 거둔 모든 문화는 향토적인 것에서 승화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지역의 소중함, 작은 것의 소중함을 간파하기 쉬운 현대인들이 꼭 한 번 읽어보면 좋을 도서이다.

1935년 5월 24일 전북 고창출생  
40여년 간 고창문화원 원장으로 일하면서 고창문화의 향기를 세상에 전해왔다.  
현재 고창지역학연구소장으로 고창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전북협의회 회장, 한국문인협회 회원, 전북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동안 전라북도 문화재 전문위원과 전국문화원연합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5월 고창(高敞)의 인물

황윤석

1729년(영조5년) 고창군 성내면 조동리에서 태어나 1791년(정조15년)에 세상을 떠난 조선 후기 대표 실학자다.

그의 저서 '이재난고(頤齋亂藁, 전북 유형문화재 제111호)'는 10세부터 시작해 63세로 별세하기 2일전까지 보고, 듣고, 배우고, 생각한 문학·산학·예학·도학·지리·역상·언어학·예술 등 정치·경제·사회·농·공·상 등의 여러 방면에 걸친 인류생활에 이용되는 실사를 총망라해 쓴 일기 또는 기사체로 6천장 57책으로 되어 있다.

'이재난고 頤齋亂藁'는 그 엄청난 양뿐만 아니라 실학적인 내용과 함께 한국의 저술사상 최고로 평가받고 있다.

참고 백과전서과 실학의 거목 이재 황윤석(전북대학교 이재연구소 저자 허우봉, 이선아)



▲ 황윤석 선생 생가

